

영광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본격 시작

귀농귀촌 희망하는 도시민 3개월간 일자리·농촌생활 체험 '프로젝트 참여형' 만 40세 미만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영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3개월 동안 농촌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및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운영할 프로그램의 유형은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전남에서는 영광군을 비롯한 2개의 시군에서 추진된다.

'프로젝트 참여형'이란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수행하며 농촌 생활

체험과 취·창업의 탐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영광군 지역관광협의체(대표 차상혁)가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대 청년 3명이 참가자로 선정되어 지난 15일 입소식을 진행하였으며, 18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었다.

차상혁 대표는 "도시의 청년들이 영광군이라는 지역에 와서도 얼마든지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다양한 창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 모두 좋은 성과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2기수로 나누어 진행

되며 1기수(4. 15.~7. 14.)가 종료된 후 2기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주일만에 18억원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주일만에 60%이상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사업(3차)과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과 신청서류를 일원화하여 신속지급에 집중하였다. 지난 1차와 2차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신청 홍보를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과 4.11(월)부터 4.18(월)까지 일주일간 1,576개소에 18억원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3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단,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2차때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태양광발전 및 참고금 등 코로나 매출감소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21년 하반기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사행성업종, 부동산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11(월)부터 5.20(금)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영암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증도면 기점소약도, '순례자의집' 게스트하우스 개장



신안군은 18일 순례자의집으로 알려진 증도면 기점소약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고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장한 게스트하우스는 4인실 4실과 8인실 1실 등 총 5객실로 수용인원 24명이다. 기존 16인실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면 1일 최대 4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 카페와 특산물 판매장, 식당 등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섬과 12사도 건축미술품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속에서 체류하고 싶은 방문객의 휴식과 여행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범운영을 거쳐 개장하였다.

군 관계자는 순례자의집 게스트하우스가 기점소약도의 관광상품 역할을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례자의집 기점소약도는 108명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에서 이제는 년 5만 3천여명의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신안군의 또 다른 대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에 지속 노력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 기능 보강

목포시가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에 힘쓰고 있다.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공원, 나대지 등 생활주변에 야외운동기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중앙식료시장 외 2개소에 공중건기, 옆구리운동 등 5종을 새로 설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부서와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38개소 188개를 설치했다.

리틀야구장에 대한 정비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4억7천만원을 투입해 야구장을 조성하고 지난 2월에는 배수로 정비와 인조잔디(6,700㎡)를 조성하고 덕아웃, 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자라나는 야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야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충전된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 가동되는 친환경 태양광 LED 가로등 6주를 리틀야구장에 설치했다.

이외에도 시는 부주산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파크골프장 잔디 보강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강을 지속 실시해 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지역농산물 활용 발효식품 교육 운영 발효 이론부터 가공 실습...밀키트 제조까지 인기리에 교육

무안군은 전통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발효기술을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23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통 누룩, 조청과 콩알메주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조해보는 실습과 현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밀키트 제조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농업 관련 창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인들이 어렵게

만 생각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우리 농산물 식품 가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 전통 발효를 통한 창업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생산, 가공, 음식 관광 체험이 이루어지는 6차 산업화 방안도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